

##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이 기 연

- 여수시 여천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7회 입법고시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이기연이라고 합니다. 수험생활에서 합격수기를 읽으며 힘을 얻었는데 이렇게 제가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저는 합격수기를 시험과정에 따라 쓰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선 구체적인 과정별 설명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법고시, 행정고시 모두 제1차시험(PSAT), 제2차시험(논문형 시험), 제3차시험(면접)으로 구성됩니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이야기가 주를 이루되, 다만 면접의 경우 따로 대목차를 설정할 만큼 할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타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기에 앞서 제 수험기간을 밝히자면 저는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년 6개월의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만약 단기기간의 합격이나 저보다 짧은 년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 등은 제 수기상의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격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방

법이 있으며, 한 가지 방법을 맹신하기 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용 또는 취사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 합격수기도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게 취급해주시길 바랍니다.

## II. 제1차시험 준비

### 1. 개 괄

저는 2017년부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포함하여 1차시험(이하 피셋)을 10회 가량 응시하였습니다. 저는 피셋형 인간이 아닙니다. 2017년에는 모든 피셋에서 떨어졌고 2018년, 2019년에는 행정고시 피셋, 2020년에는 입법고시 피셋, 2021년에는 양 시의 피셋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붙고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의 피셋 방법론을 익힐 수 있었고 이를 과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2021 입시 피셋의 경우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 2. 헌 법

헌법의 경우 절대적인 공부량에 비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 말 또는 늦으면 1월 초중순에 헌법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금동흙 선생님의 핵지총을 바탕으로 해당 강의를 들었습니다. 헌법이 도입된 이후 매년 헌법강의를 듣진 않고 2년 연속 듣고 어느 정도 체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다음해부터는 핵지총 책만을 사서 보거나 그 전년도에 사용했던 핵지총을 다시보곤 했습니다. 비록 60점만 넘으면 통과이지만 엄연히 한 과목에 해당하고, 해당 과목을 망치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 3. 언어논리

언어논리의 경우 기출문제 풀이를 중시하였습니다. 매해 피셋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기출문제를 약 10개년 정도 반복하였습니다. 물론 문제를 외울 정도로 되면 답을 맞추는 작업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에서 문장을 쓰는 방식, 글의 구성 등을 항상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측하며 글 읽기를 연습했습니다. 문장의 구성, 글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다음 문장이 어떠한지 하고 어떤 흐름이어야 하는지를 항상 예측하면서 읽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가 끝난 이후에는 스터디를 들어가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이하의 자료해석, 상황판단과 달리 언어논리의 경우 문제풀이에만 집중할 뿐 문제풀이와 채점 이후 별다른 오답풀이 과정을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도 제가 기출문제에서 연습하였던 것과 같이 문장의 구성, 글의 흐름 파악을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먹히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버리거나 문제풀이를 위한 풀이만을 하였습니다.

논리의 경우 저는 학과에서의 수업을 통해 커버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언어논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논리 또한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언어논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논리에 힘을 쓰기 보다는 언어에 조금 더 힘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논리를 곧잘 함에도 불구하고 연습과 실전에서 모

두 논리는 건너뛰고 언어지문만을 풀되 시간이 남으면 논리를 푸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 4. 자료해석

자료해석의 경우 제게 가장 자신 없는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공부한 과목입니다. 신현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이후에는 석치수 선생님의 두꺼운 책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석치수 선생님 교재를 풀 때는 큰 문제만이 아닌 선생님께서 각주로 달아놓으신 문제까지 전부 푸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14년도 자료 23번만을 풀 게 아니라 23번의 선지 4번의 숫자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 작업 이후 12월 달부터 피셋 전까지 각종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하루2개,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하나씩 풀었습니다. 풀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답지를 보지 않고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5.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준비 과정이 자료해석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없어 해주웅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이후에도 퍼즐문제만으로 따로 구성된 책을 사서 풀었습니다. 이것에 더하여 박준범 선생님의 교재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상기에서 기본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생각하고 자료해석과 마찬가지로 12월 달부터 피셋 전까지 모의고사를 많으면 하루에 2개, 적

으면 1개를 풀었습니다. 다만 사후풀이의 경우 자료해석과 같이 세세하게 할 경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에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 Ⅲ. 제2차시험 준비

#### 1. 경제학

경제학은 점수편차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험생들이 경제학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하의 과목 중에서 경제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학과 수업에서 경제학 과목을 전부 수강하였고 행정고시로 진입하여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학원수업을 따라갔습니다. 재시 이후에는 3순환 수업만을 들어 경제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고, 삼시부터는 순환 강의는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삼시 이후의 개인적인 공부는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경제학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등으로 구성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미시경제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의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문제 경향성에 미시경제학이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의 경우, 교과서로 김영산, 왕규호 교수님 공저의 미시경제학을 보았고 문제풀이 책으로 황중휴 선생님의 연습책, 김진욱 선생님의 STEP 2, 3를 풀었습니다. 다만 연습책과 스텝시리즈는 중복되는 문제가 많아 한 가지 책만을 풀어도 상

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 교과서로 정운찬, 김영식 교수님 공저의 거시경제학을 보았고 마찬가지로 연습책과 STEP 2, 3를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제학의 경우 학원 강의를 통해 1순환까지 수강하였고 이후 재경직렬 국제경제학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연습하였습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은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법학 용어가 주는 압박감과 특유의 논리구조로 인해서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공부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어느 순간 눈이 떠지고 점수가 급상승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힘들다고 하여서 포기하시거나 방어과목으로만 여기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행정법의 경우 초시 때는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정선균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재시 때는 3순환만, 삼시 이상부터는 류준세 선생님의 3순환 강의만 들었습니다. 저는 강사님들의 수험서만을 보기도 벅찼기 때문에 따로 교수님저를 구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례집의 경우 김향기 선생님의 사례집을 구해서 간이 목차만을 짜보는 방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겠지만 행정법의 경우 답안 쓰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과서, 수험서 등으로 개념을 숙지하셨다면 그것은 단지 행정법의 출발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후 사례를 많이 접하시고 그 개념들을 활용하여

적는 연습을 하셔야합니다. 학원을 택하셨다면 학원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답안을 쓰시고, 독학을 하신다면 집에서 사례집 등을 통하여 답안을 쓰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답안쓰는게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스터디, 답안특강을 통해 억지로라도 답안 쓰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답안을 쓰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논리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법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키워드가 아무리 나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알맞은 목차, 배치구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항상 쓰시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글을 쓸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지 등을 꼭 생각하여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 3. 행정학

고시를 합격했지만 아직까지 행정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시과목인 행정학에 있어서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시부터 재시까지 남들이 모두 듣는 학원 강의를 예비부터 3순환까지 따라갔습니다. 학원 선생님의 탁월한 설명력으로 인하여 강의 자체는 이해가 쉽고 재밌었으나 답안을 쓸 때면 항상 쓸 말이 없었고 점수 또한 처참하였습니다.

재시 때의 점수가 초시 때의 점수와 달라진 것을 보고, 삼시부터는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행정학 책들을 다 버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강사님의 강의를 들

었고 강사님의 말씀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초시 때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다면 강사를 막론하고 점수가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강사님의 행정학 Mapping을 통해 전체적인 행정학의 구조를 세우고 그 안을 채워나가는 암기로서 공부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답안쓰기를 계속하여 제가 배운 체계와 키워드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행정학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추상적일수록 내 답안은 구체적으로 쓰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추상적이라면 구조에서 상부구조에 위치할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하부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구조를 알아야 하고 그 구조에 들어가는 키워드들, 즉 암기의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논리적 체계성, 구체성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4. 정치학

정치학의 경우 초시와 재시 때에는 도란등이 1순환 강의와 필기노트를 기본 축으로 하였습니다. 삼시부터는 김성현 선생님의 1순환, 3순환 강의를 수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의 이해 라는 책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많이 읽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고시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행정고시의 경우 문제가

어느 정도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학 강사님을 누구를 들으시던 기출문제의 경우 10개년 정도는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역시도 스테디를 통해 행정고시,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썼습니다. 기출문제가 끝나고 난 뒤, 학원 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글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입법고시의 경우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의성 있는 주제, 특이한 주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학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가 담겨 있는 책들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외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 보다는 알고 넓게 아셔야 합니다.

#### 5. 지방행정론

저는 원래 삼시 때까지는 정보체계론을 택하였다가 마지막 시험에서 지방행정론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론의 경우 공부기간이 6개월 정도임을 참고하여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행정론의 경우 최윤경 선생님의 1,2,3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재가 서브노트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기에 따로 서브를 만들기보다는 선생님의 교재에 가필하는 식으로 하여 수업 중에 서브노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정치학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론은 기출문제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지방행정론은 아직까지는 기출이 반복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행, 입시 기출문제 각각 10개년 이상씩을 써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내용 자체가 중요한바 항상 법조문을 외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법 조항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식사시간에 틈틈이 보고 다녔습니다.

## IV. 기타

### 1. 제3차시험(면접시험) 준비

3차시험의 경우 면접으로 그룹토론, 인성면접과 PT로 구성됩니다. 그룹토론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며, 인성면접과 PT는 개인의 인성 및 발표와 분석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3차시험의 경우 대부분 2차 발표 후 스터디를 통해 충분한 연습을 거치시므로 따로 제가 드릴 코멘트가 없습니다. 다만 경청하는 자세, 겸손한 태도, 배려심, 자신의 주장의 논리성과 일관성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 2. 하루일과 및 운동, 취미활동 등

저는 아침7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1시 반 또는 12시에 돌아오는 일과를 반복하였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일어나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월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러한 스케줄을 유지하되, 토요일은 저녁만 먹고 쉬었으며 일요일은 3시 정도까지 쉬고 그 이후로는 공부하였습니다.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헬스, 조깅 등 일체를 하지 않았고 단지 시험이 완전히 끝나고 헬스나 테니스를 치곤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기에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시는 분들은 하루 1시간 이내로 가벼운 조깅이나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취미활동은 방청소를 하였습니다. 주말에 집에 들어와서 땀 흘리면서 방청소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험기간에서의 취미활동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기제일 텐데 자신만의 합법적인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 V. 나가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모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너무 만만히 보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어렵게 보고 지레 겁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성으로 비판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라는 글귀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공부에 대해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되, 합격이라는 꿈을 항상 갖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면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